

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제주시 도두동 양순옥, 김부자 해녀 - 2

해녀: 양순옥(1953). 현재 회녀 회장

김부자(1954)

인터뷰 일자 : 2019. 08.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해녀 : 양순옥(A로 기록), 김부자(B로 기록)

A : 지금 아니, 옛날서부터 옛말이 것이 있긴 있는 거라예. 예를 들면 부모의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큰 아덜은

Q : 아버지

A : 아버지 맞은다. 뭐 작은 아덜은 어머니가 맞은다. 지금도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물질을 해서 이제 지금 나이가 들다 별어버리니까 이 위험성이 있어서 며느리가 하지 못 하게 하는데, 어머니가 항상 허는 말이,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느낌을 못 느껴서 지금 세대, 그때 시대만 해도 애기덜을 많이 나지 안 해수과?. 아덜이 멧 성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뭐 아들 하나, 거의 주로 아들 하나 있는 디가 한 칠십프로(70%)가 될 걸로 아는데, 아덜 둘, 셋(2,3) 잇인 집이덜은 지금도 우리 어머니도 난 작은 아덜한티 가겠다. 나 죽으면 작은 아덜한티 가켜. 그런 말을 항상 허여마썸

Q : 기? 거문 작은 아덜 한테도 재산을 줘야지

A : 예. 그러니까 주주마썸. 예예. 예를 들으면 재산 백프로(100%)다 이렇게 하면은 백프로(100%) 있다 하면은 큰 아덜은 이제 멧 프로, 셋 아덜 멧 프로 이렇게 차차차차 하는데, 작은 아덜은

Q : 작은 아들까지도이

A : 예 작은 아들까지도 다 재산 분할, 분배

Q : 그 육지 물질하고 제주 바당하고 뭐, 뭐가 다릅디과?

A : 지금 계절적으로가 좀 엇박자가 됩니다게. 제주도하고 육지물질하고, 왜, 어느, 무신 것이 엇박자가 되냐면 이제 저도 아가씨 때 이렇게

B : 물 조류가

A : 가 봤는데 육지덜은 거의 전복, 해삼을 많이 주로 잡으레 가예. 그때 당시에는 미역 깎막 좋을 때는 미역허레 갔지만 이제는 이제 한 삼십년(30년) 후 부터는 이제 미역 깎이 안 주다 불어버리니까 전복 깎허고, 해삼 깎 이거를 주로 많이 허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언제 부터 채취냐면 거의 그 일월(1월)달 부터가예 전복, 해삼, 거기가 이제 많이 이제 허다 보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는 이제

Q : 거기는 어디를 말씀 허시는 겁니까?

B : 갔다운 지역. 전라도 지방

A : 아, 지역은 이 저 다예. 가 보면 다 사람마다 다 틀립디다예. 인연 인연으로 맺어서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속초 넘어선 깃지도, 거즘 못 간 디까지도 갔다왔습니다게. 갔다 왔는데, 거기는 주로 보니까 성산포 사름덜이 많이 갔더라고예. 그런데 또 이 저 어디 삼천포 이번에 우리 그 저

Q : 경상남도 통영?

A : 예. 통영시 쪽더레 가 보니까 물론 그 저 구좌 사름덜도 많이 갔지만 서쪽 사름덜이 많이 갔더라고예. 건데 또 저 강원도 지방도 뵈려 보니까 저 한경 사름덜도, 모슬포 사름덜도 많이 갔더라고예. 건디 전라도 지방덜도 영 가 보면, 전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 섬마다, 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예. 그 섬들 저도 돌아다니다시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어디 사름덜이 많이 가냐면은 이제 김녕에서 부터 저기 고성리 사름덜이 이렇게 모여서 그 정도 많이 가는데, 작년에 저희 그 저 유네스코 등재 하면서 해녀 협회에서 그 총무 지방을 가 보니까 우리 그 행정서 집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삼천명 이상이 다 거주지가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예. 제주도 사름덜이

Q : 어디 저기, 경상남도?

A : 어쨌든 이 그 타 이

B : 출가 물질,

A : 출가

B : 나간 사름덜

A : 나가 그 해녀

Q :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

A : 응, 살아 있는 사름덜이, 지금 출항 해녀덜이 한 삼천명(3,000명) 이상이 그렇게 뵈더라고예. 건데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제주도 현재 지금 집계 결과가 오천오백명(5,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작업 할, 현재 작업 하는 사람이 한 삼천명(3,000명) 정도 될까예.

Q : 삼천명(3,000명) 미만일 거우다.

A : 미만일 거우다. 그래서 한 오년(5년) 정도 십년(10년) 정도 되면은 작, 이렇게 또 반으로 더 이상이 줄어지지 안 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도두 같은 경우예. 지금 젊은 사름덜이 많이 들어와예. 이 우리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재미있다고예. 이모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다 하면서 지금 어 이년전만 해도 일곱 사름이 들어왔는데, 저희 도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젊은 사름덜이 많아. 경 험디 다른 디에는예. 거의 한 십년(10년) 정도 오년(5년) 넘어 가면은 해녀덜 반으로 줄어들지 안 험가 생각하는데

Q : 그 저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작업은 어느 정도 험니까?

A : 지금 우리 도두 같은 경우에 다른 디 보니까 뭐, 탈의장에 들어오며은 옛날 그 막 사고방식덜이 있어가지고예. 워 안 드밀린다 하는데, 저희 도두 같은 경우는예. 들어오겠다 신청만 하면 일년(1년) 기준을 놔 줍니다. 일년(1년) 기준을 놔 줘도 양식장이고, 모든 거, 우리 하는 거 꼭 같이, 이렇게 상황 보면서 '아, 야이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인정 했을 경우에 일년(1년) 정기총회, 해마다 일년 되면은 정기총회를 해예. 십이월(12월) 덜에 가면 정기총회 시에 가서 이제 야이는 일년(1년) 동안 지켜보니까 야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개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 는예. 그렇게 정관이 돼 있습니다. 바다만 종사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우린 절, 백원(100원) 한장도 안 받아예.

B : 다른 거 하면서 부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다에 그냥

A : 예. 바다에만 종사 해서

B : 집안일 하면서 하면

A : 우리 같이 꼭 같이 하겠다 하면은 백원(100원) 한장도 안 받는데

B : 문 열어수다게. 우리

A : 우리가 재산을 이뤄 논 것이 있습니다게. 우리가 행정에서도 아시다시피 피해 보상을 돈

으로 주질 못허다 불어버리니까 지원 사업을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꼭 같이 너네도 재산권에 대해서 꼭 같이 뭐 하겠다 하면은 그 재산에 비례해서 좀 몇 백만원 이렇게

Q : 지금 작업 허는 양은 어떻 해마썸?

B : 많이 줄었주마썸.

Q : 아니, 개네들이

A : 아, 잘해 마썸.

B : 잘합니다

A : 한 일년 이상 되니까 우리 못지 않게시리 뭐 너무 잘해

B : 지금예. 삼사년(3,4년) 돼 가난예. 뭐 옛날 해녀덜보단 물건 더 잡아내예. 젊은 아이덜이 고, 빠르고예, 동작도 빠르고, 깊은 데도 잘 들어가고

A : 지금예. 우리 같은 경우 제일 막둥이, 막내가

Q : 삼년?

B : 예. 한 삼사년(3,4)년덜 됩니다

Q : 삼사년(3,4)년

A : 우리가 지금 막내가 서른 여섯이주(36)마썸.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 7찌허는 아이가 서른여섯(36)인데, 보통 마흔넷(44), 마흔다섯(45) 들어오는 아이덜이 혼 네다섯(4,5)이 되고 예. 그래서 또 이제 나이 먹은 사름중에 마흔일곱(47), 마흔여덟(48) 이렇게 되서 들어오는 사름이 두(2) 사람 정도 되고예. 이렇게 되는데, 이사람, 애네들이예 우리 못지 않게시리 작업을 허여.

B : 경 흐고 작업도 잘 허거니와 가네덜이 막 배려가예. 우에 선배님덜 잘 섬겨마썸. 이제 애네덜은 옛날 님지 안 허영 운전도 할 수 잇이난 작업 갈 때 태와도 가고, 또 올 때 태왕도 오고,

A : 태왕도 오고

B : 또 말도 잘 들고예. 뭐라도 허면 할 일 있으면예.

A : 이모네는 앓앙 잇입서

B : 이모네랑 잇입서. 우리가 가쿠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계 작업 허당 가시 들민, 이모영 협서. 우리가 내 들이쿠다.

A : 우린 이제 눈 어둑워

B : 모든 거 다 야네덜이예. 잘 합니다게. 착합니다게

Q : 선배가 잘 허니까예

B : 예. 거난예. 진짜 어디 옆에 마을이라도 젊은 아이덜 들어오켄 허민 거 드밀립서. 젊은 아이덜 착합니다. 영 말 헐 정도로 우리

Q : 말 해 줄 정도로예

B : 우리 도두 같은 경우에는 아이덜이 너무 착해마썸

Q : 언니는 저기 출가 물질 어디 다녀오십디과?

B : 나마썸. 난예, 우리 회장만이 많이 안 다녔고 우리 국내에서는예. 충청도 지방 한번 갔단 그때 추운 때 갔단예. 충남 쪽에 갔단 울멍 돌아와나고, 혼번 또 전라도 쪽에 갔다 왔고 예. 이제 결혼 혼 후에 경혼 한 아이덜 다 난 후에 한번 일본예. 일본 물질 갔다 와수다. 일본, 강 보난 일본 바당은 꼭 우리 제주도 바다나 마찬가지로예. 물건도

Q : 거기 서해안은 빨 바다잖아예

B : 예예. 거기는 거난 처음 가근에 올명 와볼 때는예. 물 알이 우리 제주 바당 닻지 안 허영
감감해노난예. 것에 겁나고예. 물 차겁고, 워낙 물 차잡고

A : 경허연 저 바다마다 다 이제 틀려마썸.

B : 지역마다 틀려마썸

A : 경북 지방더레는 물이 맑으는데, 전라도 지방은 거의 주로 다 물이 어둡워

B : 또 일본 바당은예. 우리 제주도 바다와 똑 같아마썸. 물건도 똑 같아. 경허연 일본은 이제
그렇게 철저헌 나라라서예. 오늘은 소라만 잡아라 허문 소라만 잡아야 되고예. 문어 같은
건 우리 해녀 해당 사항이 아니라예. 해녀덜 문어는 못 잡아. 문어도 못 잡게 행 어뎡 허
다근에 몰르게 하나 두개 허면은 막 배에서 그 겐또상 선장이 이런 거 잡으면 안된덴 막
예. 우린 알명도에 모르게 막 잡아당 먹곡, 경 해났주마썸. 아뭇든 바다가 좋우다게. 바다
엇이든 못 살건디 바다 잇이난 그나마 밥 먹언 살아점수다.

Q : 그 어제도 바당 청소 했덴 헐게마는 어떤 식으로 햄수과?. 개뎡이라든지 바당 청소는

A : 개, 이제 개뎡이나 이젠양. 워낙이 쓰레기가 쓰레기가예. 말도 못 허게시리 쓰레기덜이 저
올라와예. 건데 이제 바다 같은, 바당 청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문 이제 이 통발이덜이
많이 넣다 보니까 통발이덜 많이 여에 걸려지고, 그물도 많이 걸려지고, 줄도 많이 걸려
지고, 예. 경허면은 오늘은 이제 바다 속에, 탈의장에 와서 의논하에 땃 일날은 우리가
정화사업을 하자 허면은 그디 가고, 또 도두 같은 경우에는 어항이 생기다 보니까, 이 낚
시꾼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탁을 부탁을 엄청 많이 부탁을 합니다마는 먹어난 깡통,
커피 먹어난 깡통, 엄청 많아가지고예. 저희들이 또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오지 안 해수과
예.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두 같은 경우에는 공항, 공항 우수가예. 그 우리 하천
으로 다 빠져 나와수다게. 경허고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도로가, 도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생겨, 아스콘으로 다 허다 보니까 모든 이제 관덜이, 우수관덜이 하천 쪽으
로만 빠지다 보니까 도두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 모아 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저
이 내(川)가 커예. 예. 내가 터¹⁾ 가지고, 저 우리 촬영 헌거 있습니다. 그거 이제 너무 쓰
레기가 깡통덜이고예. 엄청 많이 이렇게 해, 이번 내에 끓어 오다붙어버리니까 물 속 안
에 너무 많아마썸. 그래서 아시다시피 발농사는 태풍이나 비나 워낙 많이 와나면 눈으로
보이잖아예. 눈으로 보이니까, 아 이거는 농사 이건 피해 되겠다. 행정에서 그냥 피해 보
상 해주잖아예. 건디 해녀덜은 그런 근거가 없잖아예. 해녀덜은 그런

Q : 해녀들은 안 보문 모르주게

A : 예. 해녀덜은 우에서 눈으로 보지 못 허다 보니까 그런 거를 피해라는 것을 못 느껴마썸.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안 되겠다.
의논하에 그래도 이런 마음이라도 그래도 해녀회에서 알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나
름대로예. 이제 이거를 촬영 행 놔두자 해서 이번에 촬영 했습니다.

Q : 아, 청소 하는 거?

A : 예. 청소 하는 과정도 해 났지만 쓰레기 있는 거를.

B : 청소 이전에

A : 바다 속에 쓰레기 있는 거를

B : 건예. 한번

Q : 여기가 아무래도 도심지라부난

B : 예. 저 공항 쪽으로 내 한번 터져나문예. 저 바다에 마트가 생겨.

1) 터 : 넘쳐

A : 마트
B : 없는 거 엇이예. 다 우리 젊은 아이덜은 곱아. “이모 바다 마트 생겨수다. 바다 마트 생겨서. 이거 봅서. 이거 엇인 거 엇이” 뭐 거 일회용덜이니 뭐니 깡통, 맥주캔 뭐 이거예. 그냥 음료수캔 엄청 많아마썸.
A : 아 파스 붙인거도 이번에 두개 봉가서²⁾. 아고 나 저거 신고를 해야 될 건데
Q : 아, 여권?
B : 예. 지갑덜도 있고
A : 예. 요즘 파스 붙인 거도 다 그거
Q : 그 뭐 요즘 상군 작업 허른 누가 돈 더 많이 벌었수과?
B : 다
A : 같이 같이 우린 같이 허여. 비슷허여. 허허허허
B : 우리 같은 경우는예. 옛날부터 물질 7치 해주마는 나 같은 경우는 느려예. 동작이 느려도 깊은 바다 다니난 그나마예 잘 허. 여기 우리 회장 같은 경우엔 막 빨라마썸.
A : 빨라 하하하
B : 손이 빨라노난 아예 깊은 디 못갑니다게. 솔직히 말해. 깊은 딴 못 가도 가에서도 예 놔뭇 배 거 잡아내어마썸
Q : 7 바당에서 많이 벌더라고. 영 얘기 들었보든
B : 7디서마썸?
Q : 예
A : 가에서 많이 허는 사름도 있어마썸
B : 7에서 많이 험니다. 이 먼 바당에 가면 외 것예, 험가지면 험가지, 두가지면 두가지 허주마는 7디서 이것도 허고, 저것도 허고 행예 돈을 만들어마썸
A : 숫자가 많다 보니까
Q : 거른 일년 수입이 얼마 되어?
B : 흐흐흐흐
A : 수입은 그런대로 괜찮읍니다게
Q : 한 삼천?
A : 예. 이삼천(2,3천)예. 그 정돈 삼천 정도 돼예.
Q : 언니 더 되는 거 닳다
B : 아니우다. 이제 다 옛날덜은
A : 삼천정도
B : 다 돈 벌어근에 막 하영덜 벌언 첨
A : 소라 깡 그땐 좋을 때난
B : 예. 칠천원, 팔천원 험 땐 소라 깡예
A : 그때는 아예 돈 액수는 거의 비슷비슷 하겠지만 그럴 땐 우리 재산 사는 과정에 대해서는 발 평수가 싸니까
Q : 평수가 싸니까
A : 그니까 값어치 있게 돈을 썼지
Q : 그렇죠
A : 예. 지금은

2) 봉가서 : 주웠어

Q : 그 순옥이네 집은 언제부터 허여수과?

A : 저의 집 저거 식당 현지는 딱 이십년(20년) 올해

Q :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예

A : 예.

Q : 어떻 행 저거 헐 생각 납디과?

A : 저 같은 경우는예. 예 우리 친정 고모가 그 해산물 장사, 해녀 생활을 하면서 해녀덜 그 해 온 소라덜을 장사를 했습니다게. 예 해녀덜 해 온 거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딱 결혼을 해서 저도 이제 뭐 육지 지방을 많이 한 팔년(8년) 정도 육지 생활을 했는데 저 큰딸이 되다불어버리니까예 거기 있는 남자덜도 많이 꼬시는 남자도 있었는데 그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해지더라고예. 게서 결혼하고 딱 나서 한 이삼년(2,3년) 정도는 그대로 하다가 저희 아저씨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이 마음에 안 들다고 장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 얘기도 어렵지만 우리 친정 엄마가 얘기를 봐주다 보니까 해산물 장사를 하게 되더라고예. 해산물 장사를 하게 되서 이제 우리 식당 저 순옥이네 식당 하기 이전 한 십오년(15년) 정도는 저 해산물 장사 하면서 이거 그때 당시는 불법이지만 그 먹으레 오는 사름덜이 있고라고. 우리가 수족관을 해서 이렇게

Q : 맞수다게

A : 해산물을 하는데, 먹으레 오는 사름덜이 와 있어서 전복 키로(kg)에 찢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시작 하게 있어서예. 그래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불법이다버리니까 정식으로, 정식으로 식당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지가 이십년(20년)

Q : 처음부터 잘 되었다, 그때부터예

A : 예. 그때부터

Q : 장사도 잘 되고

A : 예. 십오년(15년) 전부터 계획은

Q : 그 돈이 태우신 거 다했게. 본인 한테도예

A : 경 험거 같애예. 저도 이제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게. 장사도 장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도 그 터미널 앞에 옥금당이란 빵집 지금도 생겼습니다마는 거기가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을 한 동네라. 그래서 이 옆집이 아이가 놀레를 왔다가 기름에 덩혀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겪었고, 또 저희 아저씨도 이제 고기 장사 하면서 수영 냉동에 갇혀서 험 여섯시간(6시간) 냉동실에 갇혀 있어도 살라는 팔자를 팔자사 태웠는지 살아나가지고 냉동에 얼질 안 하고. 허허허허.

Q : 그런 어려움덜이 다 있지 뭐. 언니는 자식덜이 뗏이파?

B : 오누이마썸. 남매예

Q : 다 결혼들 하고예

B : 예

Q : 회장님네도

A : 아들 하나, 딸 하나

Q :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같이덜 일로 하신 거?

A : 예

Q : 그 숨비 소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예. 숨비 소리에 대해서, 숨 소리 내집니까?

B : 아유, 내주마썸게

A : 아, 건데 것도 이상해예. 그 숨비 소리가
 B : 것도 각자 있나
 A : 바다에서 숨을 차 오면은, 올 때마다 호이호이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이 소리 못
 하여마썸
 Q : 다 경 하여
 A : 못 하여
 Q : 여기서는 어렵곡
 A : 예
 Q : 아직도 상군이겠네예
 A : 예. 아직도 아직까지는 상군
 Q :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상군이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 헐 거고, 칠십(70)?
 A : 보통적으로 보면은 칠십오세(75세)까지는예 지금 이 현재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뵈은 저희도 이제 그 해산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예 어촌계 별로 많이 다니는 곳이 많아
 예. 어촌계 별로 많이 다니는 곳이 많은데, 거의 주로 보면 칠십오세(75세) 때 가지는예
 상군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예. 저희들은 아직은 나이가
 B : 이제 거기서도 소수지. 그런 사람이. 경 헌디 대부분 한 칠십세(70세)예.
 Q : 칠십세(70세)까지는 상군이겠네예
 A : 아니아니. 우린 그 선배 언니덜이 보면 한림, 한림 저희 그 수원이 저희 친정
 B : 아맹해도 나이 먹어가든 우리 동네 우리 도두 같은 경우에는 그자 칠십(70) 미만예.
 Q : 응, 칠십(70) 미만
 B : 한 지금 사십(40), 아 오십대(50대)대서 칠십(70) 그 사이덜예
 Q : 오십(50)에서 칠십(70)까지
 B : 예. 그 사이덜은 워낙덜 잘 해마썸. 빠르고
 A : 예. 아직은 게메 경허니가 우리가 젊어부니까 그 나이까지는 못 미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B : 마음으로야 팔십(80)까지도 상군 노릇 허고 허주마는
 A : 저가 이제 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칠십오세(75세)까지는 상군 노릇을 하고 있
 더라고예.
 B : 지금도, 지금도 우리 작업 갔다오민 이제 뱍는³⁾ 아이덜한테 어떻 떨어질 때가 있어예. 양
 식장을 허나 어디 물건 허든. 아이고 어린 아이덜 이제야 들어 온 아이가 오히려 돈 벌인
 나보다 나사. 경허든 ‘아이고, 이거 야네덜신디 이제부터 영 떨어지든 될 건가. 아이고 헉
 꿈 더 노력행 더 잡아야지’ 그런 욕심이 생겨예.
 Q : 맞수다. 거든 한 오십(50)부터 칠십(70)까지는
 B : 예. 그사이는예
 Q : 최고의 상군이 될 거로구나예
 A : 아니아니, 젊어을 적부터도예. 아이 우리가
 B : 사름으로 가기도 허곡
 A : 사름으로 가고
 B : 대다수가 그렇게
 Q : 오십(50)까지 안 강 그럴수도 있네
 A : 아니, 저도 저 이 아까 얘기 했지만 저도 열일곱살(17살)에 강원도 지방을 갔는데, 그 강

3) 뱍는 : 배우는

원도 지방에 갈 때 그 열일곱살(17살)에 갈 때는 미역을 주로 많이 허더라고예. 미역 깎이 워낙 좋아노니까, 그래서 이제 뱃물질을 하는데, 이제 어른신덜이 이제 다 공동, 뱃물질이니까 공동 작업을 하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공동으로 안 붙여주더라고예. 넌 너 혼자 하라. 이렇게 해서 허니까 저 혼자를 해주예. 저 혼자를 하니까 한 삼사일(3,4일), 삼사일(3,4일) 자기네가 지켜본 결과 지네덜 보단도 더 미역을 캐낸 거라. 캐내니까 그때서는 이제 공동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예. 예.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아게 뵈는데

B : 나도 그때 열일곱살(17살)인가 열여덟살(18살)에 간 때 하도 우미 잘 매노난 소뭇 선주가 돌앙 강 놉, 다른 해녀덜 모르게 데령 강 막 맛 존 거도 사주곡 막 경해나서

A : 예. 경헌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젊은 아이덜이라고

B : 그땐 막 재어전게마는⁴⁾ 이젠 손이 땀서

A : 지금 저 지금도 이 애덜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지켜본 보면은 저 이렇게 깨치는 아이덜은 빨리, 바다에도예. 이 머리 깨치는 것이 있어야 돼마썸

B : 머리가 돌아가야, 아무것도

Q : 머리가 돌아가야

A : 예. 무조건

B : 문어가 하나 잇이나, 전복을 하나 잇어도 머리가 확 돌아가야. 요건 요추룩 행 잡아야 확 잡아짐직 허다. 요 전복은 어딜로 강 어떻 빗창질 해야 확 떼짐직 허다.

A : 어디 가른 소라 있다.

B : 그걸 캐칠 해야

A : 예

B : 경 해야 쉽게 허주.

A : 그런 거를 해야 돼

B : 경 안 허믈 잘못 건드령 덩기당은 혼번 물 속에 들어 갈 걸

A : 두번, 세번, 열번도 더

B : 열번까지도 들어가야 그거를 해가지고 경해

A : 그리고 소라 사는디, 전복 사는디 어느 정도양. 자기가 그 저 뭐가 있어야 되어마썸. 육지 지방도 마찬가지, 제주 지방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영 제주도 우리가 도두동이다. 이렇게 거른 도두동에서 물질을 하겠다. 허믈 내가 해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허면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면 그 바다 수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바다 여가 어떤 여라는 거를 다 자기 스스로가 깨쳐마썸. 경 허믈 아, 여기에는 소라가 있다. 전복이 있다. 문어가 있다 이렇게 해삼이 있다. 다 잇는디 예를 들영 이 근방에만 해섬 전복이 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해섬 사는 곳이 있고, 전복 사는 곳이 있고, 소라 사는 곳이 있어예. 거란 사름, 이 바다에도예. 이 머리가 좋아야.

Q : 머리가 좋아야

B : 우리만 해도 아까도 말 해주마는 어려운 집에 태어남 고생 고생허멍 돈 벌영 부모네라도 좀 도와드리주게. 그런 마음에서 물질 허곡, 막 부끄러와예. 남 앞에 상에

A : 맘도 많이 앞았던

B : 나서질 못 혈 정도로 부끄럽고 영 해주마는 지금 와서는예.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 되고 이추룩 허당 보난 막 자부심을 가지고예. 이젠 우리 동네 사름덜, 다른 동네 사름덜 물론 뭐 관광덜도 다뉘주마는 우리 회장 노력하에 이런 민요교실 같은 것도 허난 막 웃음도

4) 재어전게마는 : 빠르게 해졌는데

허고, 어떨 땐 보건소나 어디서나 와근에 막 웃음치료사, 막 이렇게 행 막 해주고예. 놈 안 가는 여행도 여기저기 견학도 갈 수 있고, 이 놈 안 가는 외국 어디 독일 같은디 우리 구월(9월) 십구일(19일) 날은 저 독일

A : 관악대

B : 예. 관악대에

A : 관악대에 참석하게 되ით어.

Q : 아

B : 이번 저 팔월(8월) 팔일(8일) 날, 팔월(8월) 구일(9일) 날 그때, 그때는 외국에서 그 분들이 여기 오셨주마는 이번에 우리 저 구월(9월) 십구일(19일) 날은예. 우리 도두 해녀 이십삼명(23명)이 독일예. 구경도 가곡양

A : 관악대에 참여하게 돼

B : 경 한예. 막 좋거수다.

Q : 그디 가서 뭐 거문 '이어노 사나' 불러야 될 건가?

B : 예. '이어나 사나'도 불르곡 다른 노래도 있고

A : 해녀 노래

B : 해녀 노래도. 우리 한이 맏힌 노래덜 막 배암서 요새.

A : 경 허고 또 도두회가 티오(T/O)가 좋은 것은 이번에 그 해녀 동상, 해녀 동상 세우레 감수다게, 독일예. 예.

Q : 아, 그거를

A : 예

Q : 노로렐라이?

B : 노로렐라이시에, 노로렐라이시에.

Q : 구월(9월) 언제마썸?

A : 십구일(19일) 날

B : 십구일(19일) 날 여기서 출발 햄수다.

Q : 아, 구월(9월) 십구일(19일). 이제 금방인게예.

B : 예. 멩질 념영 금방, 바로

Q : 스물 몇 분이 다

B : 예

A : 스물세(23) 사람

Q : 잘 다녀오시고 또 무시거 다 물어 봐진거 같긴 헐디예. 거의 다 말씀은 해주신 거 닻아. 게 해산물인 경우는 미역하고 또 뭐가 있어수과, 우미?

B : 해초?

A : 예. 해초류는

B : 우뭇가사리

Q : 우뭇가사리

B : 툄

Q : 우미는 어뎡 햄수과?

A : 우미 같은 경우에는예. 올해까지는 가격이 좋아수다게. 올해까지는 그 저 우리 그 저 조합장님이 일본하고 잃게 계약을 해서 예, 만원 이상이 갔었는데, 이제 모르겄습니다게. 뭐 지금 조합장님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소라도 거 걱정이 됩니다게. 일본하고 이렇

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그 해녀덜은 해여 오는 물건이

Q : 다 일본

A : 소라나 모든 것이 다 일본 수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널⁵⁾ 모리⁶⁾ 구월달 되면은 해
치가 되는데 거의 시월달 되면은 거의 일본 수출을 했었는데

Q : 판매가이

A : 예. 판매가 어떻게 될런지

5) 널 : 내일

6) 모리 : 모래